

만고의 '청정법신' 천지보니 눈물이...

광복 50년 1995년 8월 15일

백두산에 오르다

고 은

서사시 「백두산」 전 7권의 지은이가 중심무대인 백두산을 상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분단의 한 비극이었다.

그것을 끝마친 1년 뒤에야 백두산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중국작가동맹의 초청과 연변대학 초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갈 처지가 아니어서 그만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 동쪽나라 어린이 극토순례단의 백두산 순례동반 어린이 1백 명 및 명과 동행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뜻있는 일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장차 이 겨레와 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어린이들과 함께 이 겨레 5천년의 정신을 표상하는 백두영봉에 오른다는 것은 시련으로 이어진 시대를 살아온 나로서는 하나의 축복이었다. 나뿐 아니라 동쪽나

라 대표 김형준씨도 가장 천진난만한 백두산의 어린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일제 식민지시대의 최남선 일행이 항일독립군을 결성하는 일본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혜산진에서 삼지연 경유 백두산에 오르는 과정을 써놓은 글을 읽은 일이 있거니와 이제까지 나는 가능하면 백두산을 우리나라 땅을 거쳐서 올라가고 싶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 경로로 오르는 일을 기다릴 수 없었다. 또한 중국 동북지방 조선족자치주인 연변은 동포의 생활근거지로서의 긴 족적 실체를 인정해야 할 때 그곳을 통해서 백두산에 다가가는 것도 소중한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 백두산 정상 천문봉 탁막까지 자동차 길이 만들어져서 그곳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는 벅찬 감회

를 품어 었드릴 수도 없었다. 요컨대 속수무책이었다. 그렇게 2시간 동안이나 몇개의 봉우리를 갈날처럼 예리한 능선으로 이어주는 비탈을 세찬 바람자락을 맞으면서 바보가 되어 어슬렁어슬렁 건너다닐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건너 쪽 장군봉과 망천후의 그 우렁찬 모습에 내 눈길이 닿자마자 거기에 불이라도 나는 것



▷백두산 정상 '천지'. 구름을 뚫고 나타난 장엄이아말로 우리민족의 청정법신이다. 고은씨가 어린 불자들에게 바른 민족정신을 일깨우고 있다.

정상오르자 구름 걷히며 16개봉 대장관 벽찬 감동·환희속 새싹들과 통일 발원

는 없다 하더라도 그 정상에 올라서는 순간 온몸이 떨리는 바는 어쩔 수 없는 내적 충만이었다.

이윽고 천지를 내려다 보게 되었을 때 천지를 덮고 있던 구름이 마치 우리 일행을 환영이라도 하는 것처럼 흩어져서 백두영봉 열여섯봉 우리와 그 봉우리의 그림자마저 담고 있는 푸른 천지를 다 보여주는 것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일 수도 없었고 무

척처럼 어떤 화염의 환각이 발했다. 백두산! 백두산 천지!

그것은 하나의 엄중한 도성(都城)이었다. 어떤 사악이나 어떤 수단도 허용하지 않는 초전략의 절대로서 우리 겨레의 영원을 이룩하고 있는 것이었다.

백두산 열여섯봉우리와 그 봉우리를 성으로 삼고 만고의 청정 법신으로 담겨있는 천지아말로 그것 없이는 우리가 결코 우리일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었다.

하지만 우리 겨레 몇천년의 역사는 과연 우리 겨레의 자연인 백두산에 대해서 미치지 못한 바가 너무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은 자기반성이 있어야 했다.

1995년 8월15일은 우리 겨레가 일제로부터 해방된지 5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날 나는 서울의 경복궁에 있지 않고 어린이들과 함께 백두산 천지를 내려다보며 통일을 발

원하고 있었다.

나는 정작 그곳을 내려가는 도중 그 끝간데 모르는 수림지대의 풍야를 내려다보며 울음이 터져나왔다.

다음날 연길공항에서 북경으로 가는 비행기의 창을 통해서 패적한 날의 백두산 일대를 손에 잡힐듯이 바라보게 되어야 나는 그곳을 향해서 맞이하고 빌고 빌었다. 아무리 빌어도 모자랄만큼 빌다가 그 신성 한 백두산을 놓치고 말았다.

어디에 가도 우리 겨레로서의 동포는 힘차게 살아가고 있었다. 연변에 가도 일본에 가도 유럽에 가도 아메리카에 가도 그러했다.

바로 그런 삶의 의지아말로 백두산의 기슭에서 발생한 것이 틀림없다는 확신은 이제 확신이자 하나의 사실이다. 이제 우리 겨레에게는 새삼 할 일이 있다. 그 일이 무엇이겠는가.

(본지 논설고문)



▷관악산 봉우리 깎아지른 듯한 비위변량 연주대. 무학대사와 세종대왕에 얽힌 전설이 있다.

연주암등 관악산 명승고찰 탐방 내달 10일 두레 서울답사팀

처서가 문득 넘어 귀뚜라미 소리가 완연한 계절이다. 아침·저녁의 선선해진 바람에 그동안 더운 날씨로 미뤄오던 독서의 시간으로 파묻혀 지내고 싶다는 유혹을 느끼기도 하는 계절이다.

그러나 직장생활과 집안살림으로 쫓겨간 생활에서는 그저 그런 기분이 사치로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휴일을 이용, 책을 읽는 것 못지 않은 경험과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보자.

문화유적 답사 모임 두레에서는 책 속의 지식 못지 않게 새로운 경험과 진리를 함께 탐구할 서울답사팀을 모집한다.

「관악산 문화유산 답사」 귀뚜라미 숲까지 않은가. 멀리 떠나야 여행이고 경험인 것은 아니다. 떠나보지, 문화박사 나카순씨의 안내로 관악산의 연주암, 지운암, 마애불, 삼막사, 한우물 등을 돌아보게 될 서울답사는 9월10일 일요일 오전 9시에 출발한다. (02)712-5812

신행수첩

변산에서 초가를 수행 용진 신행회

늦더위도 한풀 고개를 숙이고 아침 저녁으로 스산한 가을 바람이 마음을 설레게 하는 요즘은 마음수행하기에 꼭 알맞은 시기다.

이때를 놓칠세라 용진신행회는 오는 9월10일 전라북도 변산 내소사와 개암사로 수행일정에 오른다.

못 하나 쓰지않고 나무를 깎아 서로 교합해 만들었다는 독창적인 내소사 대웅보전과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의 개암사 대웅전은 실산유곡의 그윽한 풍미를 한껏 자랑하며 참배객을 맞이할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개암사에서 조금 떨어진 원효방 굴이래서 솟아나는 샘물 한 모금에 목을 축이면 더욱 좋을 것이다. (02)279-1191~3



▷원효와 의상이 머물렀다는 전록 부인 변산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개암사.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인 대웅전은 조선전기 대표적 건축물로 꼽힌다.

수화로 부처님 진리를 광림사 연화복지학원

무명속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청각장애 법우들에게 부

처님의 진리를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광림사 연화복지학원이 청각장애법우들에게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자비실천의 공덕을 쌓기 위해 9월11일부터 3개

월 기간으로 수화교실을 개강한다.

나와 남을 이롭게 하고 향상의 길로 이끄시는 부처님의 자비속에서 보살의 행위를 실천하며 맑고 복된 삶의 길잡이가 되어 모두 함께 깨달음의 길로 가고자 하는 법우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듯.

강의는 매주 월, 목요일 오후 7시~8시30분이며 장소는 송파구 석촌동 연화복지학원. (02)202-5831

부처님 품속 즐거운 놀이 불교레크리에이션 특강

어린이포교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전 역시 불교 백년대계의 주인공이 바로 어린이들이기 때문이다.

불교레크리에이션 포교회는 2학기를 맞이한 어린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불교레크리에이션 특강'을 연다.

이번 특강에는 불교기초교리, 포크댄스, 찬불가 율동, 동요부르기, 게임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불심을 높이고 즐거운 학교생활에 정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듯하다.

강의는 9월 4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이며 무료로 진행된다. (02)934-1748

소백산 절경 회방사로 불교 신행연, 문화기행

태백산맥에서 소백산맥이 분맥하면서부터 시작된 소백산의 비로봉·연화봉을 사이에 두고 계속마다 천년고찰이 즐비하다. 부석사, 회방사, 석불사, 성혈사가 대표적이다.

불교신행연구원(원장 김현준)은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불교 문

화기행을 떠난다.

이번 기행은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건축물이며 국보 18호인 무량수전, 의상조사의 진영을 모신 조사당 등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석사, 임진왜란때 승군의 절신을 써서 보급하는 등 호국불교의 일익을 담당했던 용문사 등의 불교 문화유적을 둘러보게 된다.

한편 각 사찰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있을 예정이다. (02)587-6613

▷기사첨착 '부처님의 지구사랑' '95 신행칼럼'입니다.

**현대불교와 함께 일할
신문 판촉사원을 찾습니다**

현대불교는 불자들이 복잡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하실 수 있도록 전 지면을 신행위주로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불자님들 가정에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를 보급하는 일에 저희와 함께 동참할 '일선 전방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구분	모집인원	시기	자격	구비서류	대우
신문 판촉요원	00명	상시	제한없음 (교계활동 경력자, 기성주부 환영)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증 통신통지	소정의 월봉 및 각종 학급 지급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화(02)737-8881 판매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속의 불교 38

수학문제를 못 푸는 중학생에게...

살아있는 생물이면 어떤 것이든 하나 예외 없이,
약한 것이건 강한 것이건, 같건 크건 아니면 중간치이건,
또는 짧은 굵긴, 길건 가늘건, 왜소하건 장대하건,
잘났건 못났건, 보기에 좋건 안 좋건, 멀리 있건 가까이 있건, 친하건 안 친하건,
태어났건 안 태어났건, 눈이 보이건 안 보이건,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자비에게 나오는 말씀이다.

자비란 조건 없는 사랑이다. 형상을 따지지 않고 선·악을 뛰어넘는다. 하물며 귀천을 따르겠는가. 죄가 있든 없든, 거지든 부자이든, 심지어 벌레든 짐승이든, 그 대상이 무엇이든 아낌 없이 내줄 수 있는 마음이 자비의 근본이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에 빠져드는 감

정이나 악의와 분노, 증오의 감정은 자비의 적이다. 자비는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내줄 수 있는 사랑을 말한다.

상대가 하찮아 보이고 못나 보이고, 쉽게 보일 때,
상대가 무능해 보이고 그릇되어 보이고 탐욕스러워 보일 때
'저것이 바로 내가 몰랐던 시절의, 못났던 시절의 나의 모습이지.' 하며 아량과 지혜로 감싸줄 수 있는 게 자비이다.

상대가 아만·탐욕·증오를 드러낼 때, 변민과 고통에 잠길 때,
모든 이에게 선의와 이해심이 넘치기를, 모든 이가 증오와 적의에서 벗어나 평온과 행복을 누리기를 기원하는 마음도 자비이다.

자비는 삶을 운명하게 한다. 사람들을 한 그루의 거목처럼 자라나게 한다.

자비는 과거의 공덕이 현실이 과보로 열매 맺게 하는 힘을 갖는다.
자비는 삶 그 자체가 기쁨의 원천이 되게 한다.
자비야말로 삶의 목적이요, 삶의 차원을 높이는 동력이기도 하다.
자비야말로 수억겁 세월 동안 누적된 업장을 녹이는 용해제이기도 하다.

삼 속에서 자비를 생활화하면 먼저 현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상대를 마음으로 흔쾌히 수용하여 동심원(同心圓)이 되어야 한다. 자비는 거창한 그 무엇, 숭고한 그 무엇이기에 이전에 회노악이 뒤엉킨 생활 속에서 마음의 작은 등불을 밝히는 것로부터 비롯된다.

그 작은 등불이 불법을 살린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따뜻한 마음의 불

씨를 살려내는 것 그것으로써 불법은 들불처럼 살아서 번진다.

대 학생이 수학을 잘 할 줄 모르는 중학생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못났다고, 잘 모른다고 핀잔을 줄 수 있겠는가. 따뜻한 마음으로 찬찬히 알려주는 게 도리이듯이 자비란 생활 가운데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감싸안은 크고도 넓은 자비이다. 고로 대자대비이다. 모든 중생과 근본으로부터 한 몸이 되신 것이기에 동체대비인 것이다.

협찬: 김희주

불법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